EAP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우즈벡으로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왔음. 9년 지내면서, 아버지랑 어머니 두 분 다 선교사 시고, 그곳 학교에 지낸 이야기,. 가서 언어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고 (영어를 사용하는) 우즈벡에 있는 영어 MK 학교로 다니게 되었음. 문화적 차이를 많이 겪었는데, 우즈벡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 배려하고 대우 하는 것에서 비슷햇지만 우즈벡에 온 미국 사람이 힘들었다.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서 상처를 굉장히 쉽게 받기도 했다. 많이 지내면서 느끼게 된 부분. 초중학교 합쳐져 있고 고등학교 좀 다른 부분이 존재 했음. 고등학교 때 러시아어를 쓰는 학교를 다녔었음. 동네 친구들도 러시아를 사용하니까 어떻게든 생활 언어로 살아가기는 했는데 수업을 듣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음. 영어를 할 줄 아는 친구랑 많이 친해졌었고 반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일상 생활을 하느데 문제가 없었음.

선교사 단체에 속해서 파견나가는. 지금까지 14년정도 머물고 계셨음. 누나가 3년 일찍 한국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되엇고, 부모님이 안식년이었을 때 고등학교를 갈 곳이 필요했음. 다니던 학교가 중학교 까지밖에 없어서 그렇게 먼저 오게 되었음.

MK들 사이에서 한동대가 유명했다. 선례가 생기면 아무래도 소식이 돌게 되는 것처럼 많이 듣게 되어서 한동대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께서 96년도 한동대에서 수련회로 오시게 되었다. 다른 교회의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여기로 수련회를 오시게 되었다. 그때 싸이월드에 올린 사진을 보고 옛날 사진을 보기도 했었다. 그때의 경험으로 명현이에게 한동대로 추천을 받았다. 한동 글로벌 학교는 원래 선교사들 자녀, 교수님들 자녀를 위한 학교였는데 공인 인증이 안된다고 명령이 나와서 일반 학생들한테도 오픈이 돼서 좀 학교가 커지게 된 것..!!!! 18년도 2학기 때 한동 글로벌 학교를 왔고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왔는데 여기서 학기 수로 봤을 때 고듷학교 1학년 2학기를 지냈다. 한국에 와서 선후배 문화를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배운 것 대로 행동하면서 배움. 우즈백에 02년생 남자 친구가 한 명도 없었는데 한 학년에 50명 이었지만 동갑을 만나게 돼서 좋앗다고 함.

컴퓨터 전공은은 언제부터 생각했는지. 팀 형이 기계었다가 다른 데로 전과를 하게 된 경험을 하기도 하고 새섬형도 기계과에서 전전으로 갔고, 친한 형도 기계과는 아니라고 하니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컴공을 선택하게 되었다. 코딩 수업을 들어봤는데 재밋고 잘 맞아서 그래서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물리를 더 많이 공부를 했는데 컴퓨터 전공을 C언ㅇ어를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해당 전공에 대한 생각으로 굳히게 되었다.

성가대, 누나가 먼저 들어와서 알게 되었고 그렇게 들어옴. 21년도에 들어왔고 다른 동아리는 없고

MK여서 좋은 점!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 볼 수 있는 것 같음. 한 문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9년 이란 시간동안 깊게 살다왔기 때문에 문화 차이가 얼만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늘릴 수 있었고, 언어적 측면에서도 굉장 좋은 실력을 갖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어디를 가든 지 두려움이 없다.. !!! 다른 나라의 여행을 갔다고 하면 사람들을 만나느 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MK 자녀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엇고 감사 편지도 작성하기도 함.

안 좋은 점.

어렸을 적 친구가 한국에 없는 것. 오래 사귄 친구가 없다는 것.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옮겨 다니기도 하니까 오래 사귄 친구를 두기가 힘들었다.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반발심을 가져서.. 아들을 먼저 챙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것에 대한 미움과 질투로 인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

4년에 한 번 안식일

부모님을 뵈려면 잠깐 우즈백에 갔다가 오는 식으로 뵈는 수 밖에 없다. 2달 정도 지난 방학에 보고 왔는데, 1년 만에 만나 뵈었고, 오랜 만에 만나서 잔소리도 하시고 습관에 대한 잔소리도 하시고

선교지의 환경 상 선교를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면서 그런 삶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만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삶이 명현이의 좌우명이라고 함.